

하고 싶은 것이 많아 전공을 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비슷한 분야도 아니고 디자인, 과학, 글, 건축, 음악 등 다양한 것들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프트웨어를 접했습니다. 이거다! 싶더군요. 이 세상의 모든 분야가 소프트웨어와 융합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입한 고등학교 소프트웨어 동아리에서 그저 즐겁게 코드를 짜 게임을 만들었던 경험으로 시작해 EV3 로봇을 프로그래밍하며 팀원과 싸웠던 경험,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디자인을 더 열심히 배웠던 경험, 멋진 아이디어로 쓸 만한 서비스를 만들어 본 경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것을 사랑하지만, 가지고 있는 커다란 열정의 뚜렷한 방향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열정의 방향을 찾고 쏟아내 보고 싶습니다.

보유 기술 & 도구 Tech Skills & Tools

학습해본 경험이 있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1회 이상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기술과 도구들을 작성했습니다.

Languages

C C++ Python Javascript

Front-End

React HTML5 CSS3

Tools

Adobe XD Notion Trello Git Bash

EDUCATION

2020~ 인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입학 (현 2학년 마침)

2021.03 ~ 2021.09 멋쟁이 사자처럼 인하대학교 9기

프로젝트 PROJECT

대학교 입학 후 진행한 프로젝트 중 일부에 대해 맡은 역할, 사용한 도구, 기술과 배운 점을 작성했습니다.

2020.09 Healing Scent

인하대학교 화합챌린지 대회

- 향수 구독 서비스
- Reactive Native 활용한 프론트엔드 개발 및 UI/UX 디자인 담당
- 협업에 필요한 자세, 도움이 되는 도구(Notion, GitHub)에 대해 습득
- 최우수상 수상

2020.11 Foodlens

인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아이디어톤

- 기획 및 Adobe XD 활용한 UI/UX 디자인 담당
- 텍스트인식을 활용한 알레르기 음식 알림 서비스
- UI/UX 디자인에 대해 학습
- 3위 수상

2021.05 너&나먹자

인하대학교 IT 경진대회

- 기획, 디자인, html5와 css 3 활용한 웹 프론트엔드 개발 담당
- 배달음식 공동구매 서비스
- 우수상 수상

2021.06 NSB

멋쟁이사자처럼 중앙 아이디어톤

- html5, css 3, javascript 활용한 웹 프론트엔드 개발 및 디자인 담당
- 새로 개발한 서비스를 공개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플랫폼
- 프론트엔드

2021.07 Carrier

멋쟁이사자처럼 중앙 해커톤

- React, styled-components 활용한 웹 앱(모바일 웹) 프론트엔드 개발 담당
- 맞춤형 가이드 추천 서비스
- 버전 관리의 중요성 습득
- 협업 시 팀원 간 코드 리뷰를 통한 버그와 장애의 사전 예방, 코드 스타일 통일, 지식 공유, 코드 품질 향상 경험
- Git-flow 브랜치 전략 습득
- BEST10 진입
- [GitHub](#)
- [Carrier](#)

2021.09 Eco-ring

멋쟁이사자처럼 연합 해커톤

- React 활용한 웹 앱(모바일 웹) 프론트엔드 개발 및 UI/UX 디자인 담당
- 환경 보호를 위한 행동 기록 앱

자기소개 & 지원동기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

서비스와 IT기술에 관심이 많아서 광고 하나, 기사 하나 허투루 보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user의 시선 뿐 아니라 개발자의 시선으로 보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동선을 위해 이렇게 배치했네.' '꼭 이렇게 해야 하나? 불편한데.'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겠다.' 하는 종류의 생각이 떠오르면 곧바로 메모장에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메모장에는 죽기 전에 실현이 될까 싶은 아이디어부터 당장 구현해볼 수 있는 서비스까지, 만들어내고 싶은 서비스가 많습니다. 되돌아보니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되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언제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그동안 메모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잡아 혼자 상상으로만 해오던 것들을 현실에 옮겨보고 싶습니다. 서비스 개발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직접 경험하며 제가 원하는 대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싶습니다.

컴퓨터공학 전공이지만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

아직도 디자이너의 꿈을 꿈꿨다. 설계하고 그리고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들었던 UI/UX 스터디를 시작으로 종종 프로젝트에 디자이너 역할로 참여했습니다. 대학 입학 후 첫 프로젝트에 이어 두번째 프로젝트에도 디자이너 역할로 참여했을 때였습니다. 대회 기간이 짧았기에 밤낮없이 디자인을 공부하는 와중에 코딩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주변 동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컴퓨터공학과인 내가 디자인을 하느라 밤을 새운다는 사실이 혼란스럽게 느껴졌고 이는 곧 불안감이 되어 최선을 다할수록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디자인과 코딩을 모두 하는 구글의 UI/UX 개발자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공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일이든 재밌고 적성에 맞는 일을 열심히 하면 인정받게 된다는 걸 문득 깨달았습니다. 덕분에 다시 디자인에 몰두할 수 있었고, 팀원들에게 마지막까지 피드백을 받으며 완성해 좋은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전공 관련이건 아니건 하고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자연히 얻어지게 많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협업을 좋아하는 사람

저만의 기준이 높고 조금은 강박적인 면도 있어 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혼자 일을 다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개인 프로젝트보다 팀 프로젝트를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 다른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 제가 맡은 태스크와 속한 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일이 좋기 때문입니다. 저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듣는 것을 즐기고, 스스로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자유로운 회의를 선호합니다. 이번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와 함께 다양한 나이대, 다양한 흥미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고 공부하며 세상을 넓게 보는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